



ILDEX China 2007

오는 10월 개최



중국 국제종합축산(양계, 양돈, 낙농) 박람회(ILDEX China 2007)가 오는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중국 북경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다.

‘ILDEX 시리즈’ 주최사인 태국 NEO(대표 Ladda)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ILDEX China 2007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VIV Asia’를 주최해온 태국 NEO는 지난해부터 ‘ILDEX 베트남’과 ‘ILDEX 인디아’ 등

‘ILDEX 시리즈’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ILDEX’가 열리게 되며 양계, 양돈, 낙농 등 전반적인 축산 제품들이 주로 전시될 예정이다.

태국 NEO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ILDEX 시리즈인 만큼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업체들의 많은 참가를 희망했다. 태국 NEO는 ‘ILDEX China 2007’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ILDEX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뉴스를 게재할 수 있으며, 전시기간 동안 무료 숙박권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6일부터 인도에서 개최되는 ‘Indan Animal Industry 2007’에 무료참가와 ‘ILDEX베트남 2008’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ILDEX China 2007은 이미 전 세계의 주요 축산 기술자들이 이미 예약을 완료하여, 아시아 및 중국의 축산, 낙농 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과 15년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주최사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에서 80개 기업과 2만여명의 국내외 참가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양계산업발전 심포지움 개최

경기도 양계인들 한자리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양평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경기도 양계인 및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산업발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경기도에서 양계인들을

대상

으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7명의 강사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첫날에는 농정국장으로부터 농정운영방안을 듣고, 한미 FTA와 양계산업의 대응방안, 친환경축산을 지향하는 산골농장의 경영사례 발표가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상호 산골농장 대표의 강연이 있었으며, 조총희 축산과장으로부터 축산시책 설명 및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날은 국내 양계질병발생 상황과 질병관리를 주제로 김기석 경북대학교 교수로부터의 강연이 있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조총희 경기도 축산과장은 FTA 등 당면 현안이 상재한 상황에서 양계인들의 생존전략으로 이번 대회를 마련하였으며, 해마다 이런 기회를 계속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가금학회 춘계심포지움 개최 가금산업의 현안 및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한국가금학회(회장 김기석)는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회원 및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산업의 현안과 생산성 향상방안'을 주제로 2007 춘계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김기석 회장은 인사를 통해 가금학회는 학계



는 물론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해

노력해

갈 뜻을 밝히고 이번 주제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ND, IB, AI 등을 선정했으며, 특히 도계육 품질에 대해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내용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도계육 품질저하에 의한 육계산업의 영향'을 주제로 신계돈 울품 부장이, '닭전염성 기관지염 한국유행주의 분자생물학적 특성과 분리주 이용'을 주제로 송창선 건국대 교수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제로 이윤정 박사가, '뉴캐슬병 국내 발생현황과 유행주의 특성'을 주제로 성환우 강원대 교수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축산연구소 개소 55주년 기념식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가 개소 5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수원 소재 축산연구소에서 축산관련 대학의 젊은 과학자 및 축산원로 등을 초청, 개소 55주년 기념식 및 축훈제, 우수논문 시상, FTA에 대응한 가축개량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움 등을 실시했다.

이상진 소장은 "축산연구소가 올리는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해 혁신을 정착시키고 완성하는 해"라며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명실

공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의 선봉장으로 응비 하자”고 다짐했다.

축산신기술 핸드북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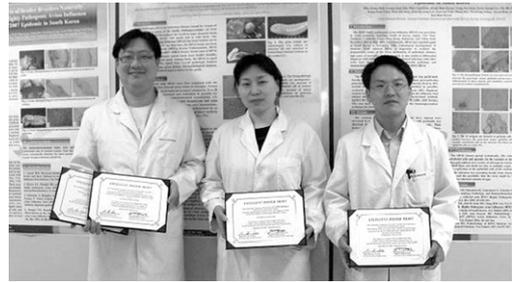
축산연구소는 '2007 신제품 마케팅 개념의 축산기술 핸드북'을 발간·배포했다. △신제품 마케팅 개념의 축산신기술 제품 소개 △2007년도 농가실증시험 수행과제 소개 △가축사양 프로그램 및 동영상 활용기술 소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이전 소개 △2007년도 축산시험연구과제 소개 등이 담겨있다. 이상진 소장은 “새로운 축산기술만이 난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하에 책자를 만들게 됐다”며 “일선현장에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으로 이어지는 좋은 정보가 되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FTA대응대책기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핸드북은 축산연구소에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031-290-177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연구팀, 3회 연속 학술발표 우수상 수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연구팀은 지난 4월 20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2007년도 대한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3회 연속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조류질병과 김민철 박사는 지난해 12월 국내사육 메추리에



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발표함으로써 학회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조류질병과 연구팀은 지난해에도 동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오리간염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세계최초로 규명한 연구결과(김민철 박사)와, 추계학술대회에서 H1형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철새 감염사례를 분자역학적으로 규명(정옥미 연구사), 최근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뉴캐슬병 백신의 닭에서의 방어효능을 분석·평가(전우진 연구사)한 연구결과로 학술발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준헌 조류질병과장은 “국내 수의학계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한수의학회에서 3회 연속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사로,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발생 등 국가재난에 속하는 큰 방역현안 외종에도 불구하고 이룬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그 값어치가 크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연구팀은 지난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에 조류인플루엔자 분자역학적 분석연구 등 총 8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 조류질병 연구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들, AI 방역기술 배우러 방한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5월 7일부터 1주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SI 방역기술을 배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해상(朴海相) 농림부 차관이 아시아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발하여 이의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아세안 협력사업으로 제안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이루어졌다. 농림부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아세안 9개국에서 19명이 참여하며,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방법을 배우고, 각국의 SI 방역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이번 우리나라의 SI 진단 및 방역기술 전수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명피해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SI 진단기술 및 방역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HACCP기준원 가축사육단계 HACCP 신청 18곳 중 9 곳 지정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이 가축사육단계(돼지농장)의 HACCP 지정을 시작한 지 2달 여 만인 4월 25일, 충남 천안의 보람축산을 9번째로 지정하였다. 제 9호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보람축산은 총 사육두수가 1,500두 정도이며, 농장주(대표 : 김동하)외에 직원은 외국인 근

로자 1명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농장이지만,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14일 최초 지정 후 2개월 여 만에 총 18건 신청 중 9곳 지정은 상당한 성과로, 가축사육단계HACCP에 대한 농장들의 관심과 열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축산물 HACCP기준원은 돼지농장HACCP 지속적인 지정과 사후관리를 경험삼아, 확대 적용될 가축사육단계(소와 닭)HACCP 준비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삼계탕, 日식육산업전에 참가



에서 개최된 '일본식육산업전'에 참가해 한국산 삼계탕제품 전시 및 시식행사를 가졌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경우)는 가금수급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대일 닭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이번 전시기간 중 일본 유통업체 식육바이어들을 초청해 일본내 삼계탕 유통실태 및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등의 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개최했다.